

13. 토양배수 능력 차이가 참깨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

(*전남농촌진흥원) (전남대학교 농과대학)

최형국·구자옥·김용재·이돈길*

배수능력 차이가 참깨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토양 배수 능력 5 처리 (모래 0 + 점토 100 %의 4 처리) 와 관수량 2 처리 ($10 \text{ mm} / 13$ 일 간격, $20 \text{ mm} / 6$ 일 간격)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철립종의의 생육, 수량 및 수량구성 요소들은 토양 (배수조건)에 따른 통계적 유의 차를 보였다.
2. 인공 강우 방법에 따른 유의 차는 착위장, 주당삭수, 삭당입수 및 주당수량에서 인정되었으며 토양과 강우 방법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당 수량에서만 유의 차가 인정되었다.
3. 간장, 착위장은 인공강우 방법에 관계없이 점토 50 %와 모래 50 %의 토양조건에서 Maximum을 보였으며 주당삭수는 점토 75 %와 모래 25 %에서 그리고 삭당입수는 점토 25 %와 모래 75 %에서 Maximum을 보였다.
4. 주당수량은 $10 \text{ mm} / 13$ 일의 경우에는 점토 75 %와 모래 25 %에서, $20 \text{ mm} / 16$ 일의 경우에는 점토 50 %와 모래 50 %에서 최고 수량을 보였다. 즉, 강우방법에 차이없이 모래 100 % 및 점토 25 %와 모래 75 %의 과잉배수조건에서는 수분 부족에 기인된 감수가

있었고 점토 100 %에서도 습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
참깨의 수량성은 점질양토에서 가장 양호하여 적습유지의 필요성이
인정되나 사질양토에서는 20 mm / 16 일의 관수방법으로도 수량의 감
수폭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